외대학보

개강호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52호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 편집장 이현지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기획] 》 3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기획] 》 5면
사범대 인원감축 논란

[사회] 》 8면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인물] 》 12면
이재현 작곡가를 만나다



학제개편, 난항 속 마주한 과제들

지난달 22일, 글로벌캠퍼스 3단대 학제개편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제개편 방향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남은 과제를 살펴보자.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혁신공유교류 협정 체결해

지난달 19일 우리학교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와 '5개 대학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은 디지털 혁신 교육콘텐츠 및 기술 공유를 통해 비대면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고 디지털 콘텐츠가 발달한 상황의 특수성에서 비롯됐다. 관련 교육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할 부분이 증가했단 공통된 인식이 협정 체결을 가능케 한 것이다. 체결식을 통해 각 대학은 △공동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공유 △교차 강의△기존 학점 교류 확대 등 협정 내용에 합의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학과 간 장벽 뿐만 아니라 대학 간 장벽도 낮춰야 한다"며 "이번 혁신공유교류가 대학 간 협업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혁신공유교류 협정 체결식 (출처:우리학교 홍보실)

협정 체결에 앞서 각 대학은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경희대학교의 'SDGs 기반 사회적 가치창출 교육과정 도입 및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고려대학교의 'KU-Insight Miner 및 KU 자유정의진리' △성균관대학교의 'SKKU × K-BioX' △우리학교의 '융합인재대학' △한양대학교 실시간 다자간 원격수업모델 'HY-LIVE 교육 플랫폼' 등의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더불어 대학별 고유 가치를 상호 보완하고 △교육△연구△학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해 6월에 혁신지원사업 공동 성과포럼 행사(이하 성과포럼)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포럼에선 미래 고등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례 공유가 이뤄진다. 우리학교 교육선진화팀 관계자는 "성과포럼에선 각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이 상세하게 공유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우리학교,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 선정돼

이번 해 1월 우리학교는 'HUFS H-UP 학기제'를 통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진로탐색학점제는 해당 학기 동안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진로 활동을 설계하고 학점을 인정받게 해주는 제도다.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HUFS H-UP 학기제는 △문화콘텐츠 발굴△융복합 학제 연구△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공헌 프로젝트△창업 등 총 7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 전략 지역 언어교육'에 강한 우리학교 특성을 반영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관심 분야를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 연계를 통해 외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 부장(이하 김 부장)은 "진로탐색학점제 활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여러 멘토와의 교감을 통해 성장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운영대학은 △인프라 및 시스템△사업운영 목적△프로그램 내용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 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우리학교 신임 교수협의회 회장에 전종섭 교수 선임돼


▲전종섭 우리학교 교수협의회장

지난 2일 전종섭 우리학교 언어인지학과학과 교수(이하 전 교수)가 제22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제22대 교협 선거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다. 투표방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전의 교협 투표는 현장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협 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80.53%로 450여 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수 중 368명이 참여했다. 전 교수는 "이번 제22대 교협의 핵심 가치는 교권과 복지다"며 "교수의 교권이 강화되고 복지가 향상될 때 △대학 평가△비대면 수업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 학교가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학교 교수 사회에 없었던 양방향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교수는 최초의 교무처장 출신 교협 회장으로 학교 전반 업무에 능숙하단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교수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리란 기대가 교수 사이에서 전해진다.

지난해 9월 교협은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엔 학생의 총장 후보 선출 참여 내용이 포함됐다. 총장 선출에 우리학교 구성원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한단 점에 동의하는 전 교수는 학생의 총장 선출권 보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결된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 주체인 △교수△교직원△학생 총회에서 제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각 주체 중 교직원과 교수의 투표는 이뤄졌지만 학생의 총회 투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 교수는 "학생들이 총장 선출권을 얻는 데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학생 총회 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개정안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며 "4월 중순에 예정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 개정안에 대한 양 캠퍼스 총회 투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 스스로 총장 선출권을 확립해야 한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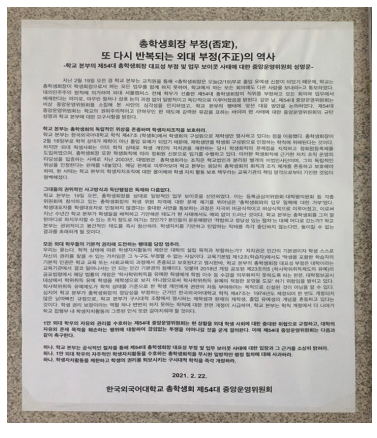
한편 교협은 교수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으로 △회장△부회장△감사△총무△평의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수의 권익 신장 도모△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대학 운영의 자율화 추구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기총회를 매 학기 1회 개최하며 총회에선 △직제 및 조직 개편△재정△학사 운영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한다. 제21대 교협은 송도캠퍼스와 미래고등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학교로부터 대표성 인정받지 못해

지난달 19일 김나현(서양어 · 프랑스어 15)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학교로부터 총학생회장 지위를 이어갈 수 없단 통보를 받았다. 김 회장이 18일부로 졸업유예생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학칙 제47조 1항과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3항에 따라 학생회는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된단 점과 졸업유예생은 재학생으로 볼 수 없단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학적을 기준으로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에 학칙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설캠 총학은 학칙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학교에 여러 번 전한 바가 있다. 김 회장은 "1974년에 제정된 학칙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회 참여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했다"며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만든 규정의 본 의도를 학교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당시엔 졸업 유예 개념이 없었기에 현재 상황에 맞게 졸업 유예생도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칙의 '재학생' 이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칙 제4조 '정회원 등록제' 엔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의 학생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부정(否定),
또 다시 반복되는 외대 부정(不正)의 역사
-학교 본부의 제54대 총학생회장 대표성 부정 및 입학 보이콧 사태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 본 학교 본부는 고지하길 통해 <총학생회장은 오늘(2/19)부로 졸업 유예생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총학생회장이자 학생회장대표이 하는 모든 업무를 함께 하지 못하며, 학교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통보하였다. 이번 사태를 보내라고 통보하였다. 이번 사태를 보내라고 통보하였다. 이번 사태를

소통 ON을 다짐하는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지난해 12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제4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진행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러진 선거는 투표율 48.51%를 기록했다. 선출된 총학생회 '온(ON)'(이하 총학온)은 'NO에서 ON으로 변화의 시작'이란 선거 유세 문구를 내세우며 학생의 목소리를 담겠단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온유(통번역·영어 15) 글캠 총학생회장과 윤정현(공과·컴전 18) 글캠 부총학생회장을 만나보자.

◆ '온(ON)'을 만나다

Q1. 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온라인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선된 소감이 어떤가요?

많은 학우의 관심 속에 당선된 만큼 자리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고 두 달간 △수업방식△평가방식△3단대 학제개편 등 많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총학 온은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입니다.

Q1-1. 온라인 유세를 하고 '케이보팅(k-voting)' 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이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유세는 학생이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전달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 총학생회 선거도 온라인으로 시행된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후보자들이 유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Q2.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학생 자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요?

수업 및 평가 방식과 같이 학생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관심을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학생 자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관심사에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학생도 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학생 자치 참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Q3. 16주 과정을 8주에 끝내는 집중학기제는 정견토론회 때 교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집중학기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칙 개정안이 통과돼 이번 학기부터 집중학기제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집중학기제는 희망하는 교수님이 진행해 따로 교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학기엔 강의계획서가 확정된 후 집중학기제 공지가 올라와 교수님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학기엔 더 많은 교수님이 지원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학 온 차원에서도 많은 교수님이 참여하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Q4. 학생상담센터와 성평등센터를 합친 통합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와 성평등센터는 다소 불평등하게 인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설립될 통합인권센터는 단순히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이 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 전반의 소수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Q4-1. 통합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통합인권센터에선 학내 인권상황 전체를 감시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능동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학내 상담센터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고나 상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단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합인권센터는 새로운 업무 체계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인권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며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글캠 총학생회장단 선거 포스터



▲글캠 총학생회장단

Q5. 여러 공약 중 최우선으로 삼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학생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진행이나 학교의 불친절 서비스 개선이 그 예입니다. 더불어 총장선거 TF팀 구성과 같이 학생이 학교 행정에 참여하는 공약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장선거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Q6. 현재 학제개편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학제개편 논의가 다시 진행될 시 총학 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인가요?

우리학교의 발전 방향성에 관해 학생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총학생회가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생 TF팀 구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게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Q6-1. 총학 온이 학내 사안 해결에 접근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는 것입니다. 학생사회에 이런 문제를 전달하고 공론화하는 건 비교적 쉽지만 교직원은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일방적 통보가 비민주적이며 학내의 의사결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치된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Q7. 이번 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목표는 학생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총장선거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 학생사회가 총장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총장 선출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총장선거에서 학생이 투표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 학생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시기를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ON)'을 향한 기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비슷한 비대면 학교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내구성원은 소통을 강조한 총학생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민경(통번역 · 마인어 19)씨는 "총학생회가 새로 선출돼 기쁘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와 협심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총학 온이 내세운 공약을 잘 지켜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글캠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총학 온의 공약은 학생의 필요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며 "방향이 옳다면 학교 측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 총학 온이 학교와 잘 소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임채영 기자 02korea@hufs.ac.kr

학제개편, 난항 속 마주한 과제들

현재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외국어계열 3개 단과대학 학제개편(이하 3단대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 다수의 학생과 교수가 학제개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제개편을 계속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부 학내 구성원은 향후 변화 없이 학제개편이 계속될 경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학제개편 진행 상황△개선해야 할 것들△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학제개편, 진행 상황은?

지난달 22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전체교수회의에서 3단대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학과장회의 등을 통해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던 학제개편을 최종 2안으로 구체화했다. 1안은 단과대학(이하 단대)을 △국제지역문화대(국제지역대)△글로벌전략언어대(동유럽대)△통번역대로 나눈 개편안이다. 2안의 경우 단대를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이하 AA대학)·유럽아메리카학대학(이하 EA대학)으로 지역별 개편한다. 지난달 8일, 김 총장은 학과장회의에서 2안 학제개편 진행을 통보했다.

다수의 학생은 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반발했다. 특히 이번 학제개편으로 인해 학과 폐지 위기에 처한 통번역대학(이하 통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2안 학제개편에 반대를 표해왔다. 13대 통대 비상대책위원회 '다음' (이하 통대 비대위)이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6% 이상의 학생이 현행 학제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설문조사 후 통대 비대위와 해당 학과 학생대표자들은 학제개편 반대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다. 글캠 총학생회 '온(ON)'(이하 총학 온)도 입장문과 대자보를 통해 학제개편에 반대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학생대표자와 학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CRC) 위원장인 우리학교 부총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하지만 면담에서 학생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교수진 또한 이번 학제개편에 반대했다. 지난해 CRC가 실시한 학제개편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문계열 교수가 1안에 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통대 교수들은 2안 학제개편을 시행하겠단 학교 측에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는 학제개편 진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최종 통보까지 학제개편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21명의 교수는 성명문을 통해 학제개편 반대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학제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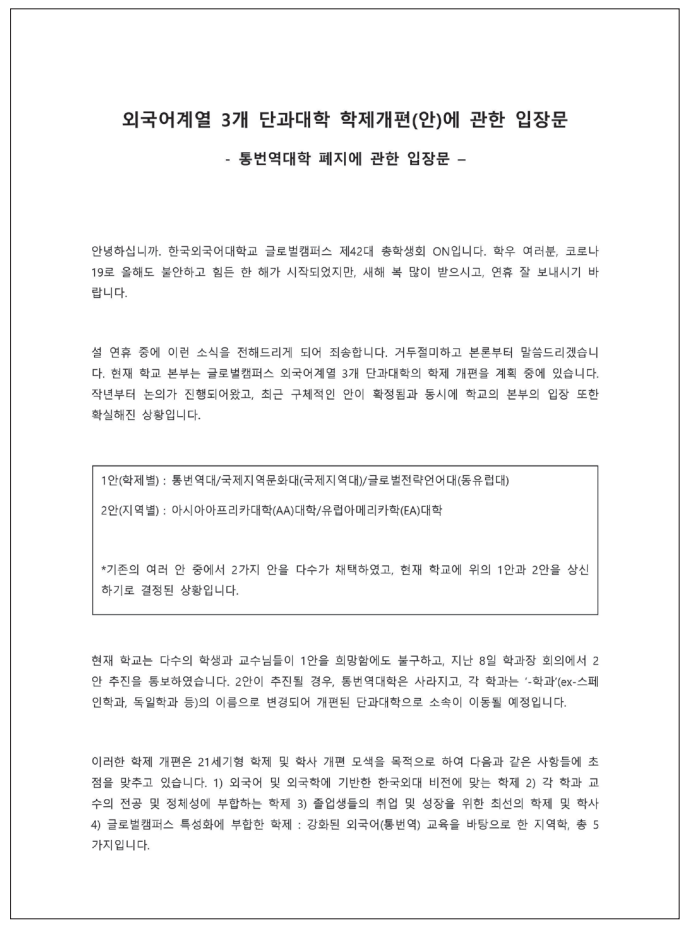
◆ 학제개편, 논의 이전 돌아봐야 할 것은?

학제개편에 앞서 학교 측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학교의 선결정 후통보 방식 재고와 단대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립이다. 먼저 학제개편을 논하는 소통방식에 대한 갈등은 이전에도 발생했다. 레지덴셜 칼리지(이하 R·C) 시행과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 신설 당시 논란이 그 예다. 2019년 4월에 열린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김 총장은 지난해 1학기부터 R·C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한 학생 설문조사에서 80%의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R·C 프로그램은 시행됐다. 융인대 신설 당시에도 이전 글캠 총학 '더 본(The 본)' 과 일부 교수들은 융인대 신설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융인대 신설을 강행했다. 결국 융인대 신설로 인해 신입생 모집인원이 축소된 통대는 수업 감축을 겪었고 불가피하게 교육과정을 재조정했다. 이에 신채민(통번역·마인어17) 마인어통번역학과 학생회장은 "이전 결정방식을 고수한 채 독단적 학제개편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충돌을 되풀이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제개편에 대한 기준 설립과 명분 부재도 논의해봐야 한다. 교수 성명문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2안의 AA대학은 2008년 국지대·통대를 설립하기 위해 폐지된 아시아-아프리카대학과 흡사하다. 또한 EA대학은 2007년 폐지한 서유럽학대학과 동유럽학대학을 합쳐놓은 결과물에 불과해 교수들은 시대착오적 학제개편이라며 반발했다. 통대를 폐지하고 내세운 2안 단대의 교육과정은 어문학과 지역학을 합친 교육과정으로 서울캠퍼스 어문계열 학과의 교육과정과 흡사하다. 이는 통대의 특수성을 없애고 양캠퍼스의 이원화에도 상충하는 문제다.

이에 우리학교 측은 AI 시대 도래로 인한 통번역 및 외국어 전공자 수요 감소를 학제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총학과 통대 비대위는 입시 결과 등의 증명된 수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는 이를 거절했고 교수들이 요구한 AI 시대 관련 구체적 개편과정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정상철 우리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이하 정 교수)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성공적인 학제개편을 위한 제안으로 학교의 우선적 투자를 꼽았다. 학교의 투자가 △문화△어문△지역학 중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학제개편을 이끌어낼 수 있단 것이다. 또한 이상엽 우리학교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교수는 학제개편 과정에서 학문의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타 대학과 차별성을 지닌 통대의 △소규모 정원△언어중심△해외실습을 EA대학과 AA대학으로 묶어 한 단대에 15개 이상 학과를 포함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대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에 공과대학 등의 이중전공을 더한다면 충분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외국어계열 3개 단과대학 학제개편(안)에 관한 입장문

- 통번역대학 폐지에 관한 입장문 -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42대 총학생회 ON입니다. 학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올해도 불안하고 힘든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중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본부는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계열 3개 단과대학의 학제 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최근 구체적인 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학교의 본부의 입장 또한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1안(학제별) : 통번역대/국제지역문화대(국제지역대)/글로벌전략언어대(동유럽대)

2안(지역별) : 아시아아프리카대학(AA)대학/유럽아메리카학(EA)대학

*기존의 여러 안 중에서 2가지 안을 다수가 채택하였고, 현재 학교에 위의 1안과 2안을 상신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수님들이 1안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학과장 회의에서 2안 추진을 통보하였습니다. 2안이 추진될 경우, 통번역대학은 사라지고, 각 학과는 '-학과'(ex-스페인학과, 독일학과 등)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개편된 단과대학으로 소속이 이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학제 개편은 21세기형 학제 및 학사 개편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외국어 및 외국학에 기반한 한국외대 비전에 맞는 학제 2) 각 학과 교수의 전공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학제 3) 졸업생들의 취업 및 성장을 위한 최선의 학제 및 학사 4) 글로벌캠퍼스 특성화에 부합한 학제 : 강화된 외국어(통번역)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역학, 총 5가지입니다.

▲학제개편 반대 입장문(출처: 글캠 총학)

◆ 학제개편, 학내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대학 경쟁력 차원에서 시대에 맞는 학제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성균관대학교는 기존 통합캠퍼스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캠퍼스를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분류했다. 자연과학캠퍼스에 글로벌융합학부를 신설해 이원화에 차별점을 두었다. 또한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취업 연계 장려금과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제개편을 이뤄냈다.

이처럼 성공적인 학제개편을 위해선 학내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한 학교 발전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 총장은 신년사에서 대학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도적 학제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간 경쟁 심화△포스트 코로나 시대△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 강구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3단대 학제개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제개편을 위한 명확한 기준 설립과 양방향의 소통이 없다면 학내 구성원 모두를 설득할 수 없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모두가 합심해 학제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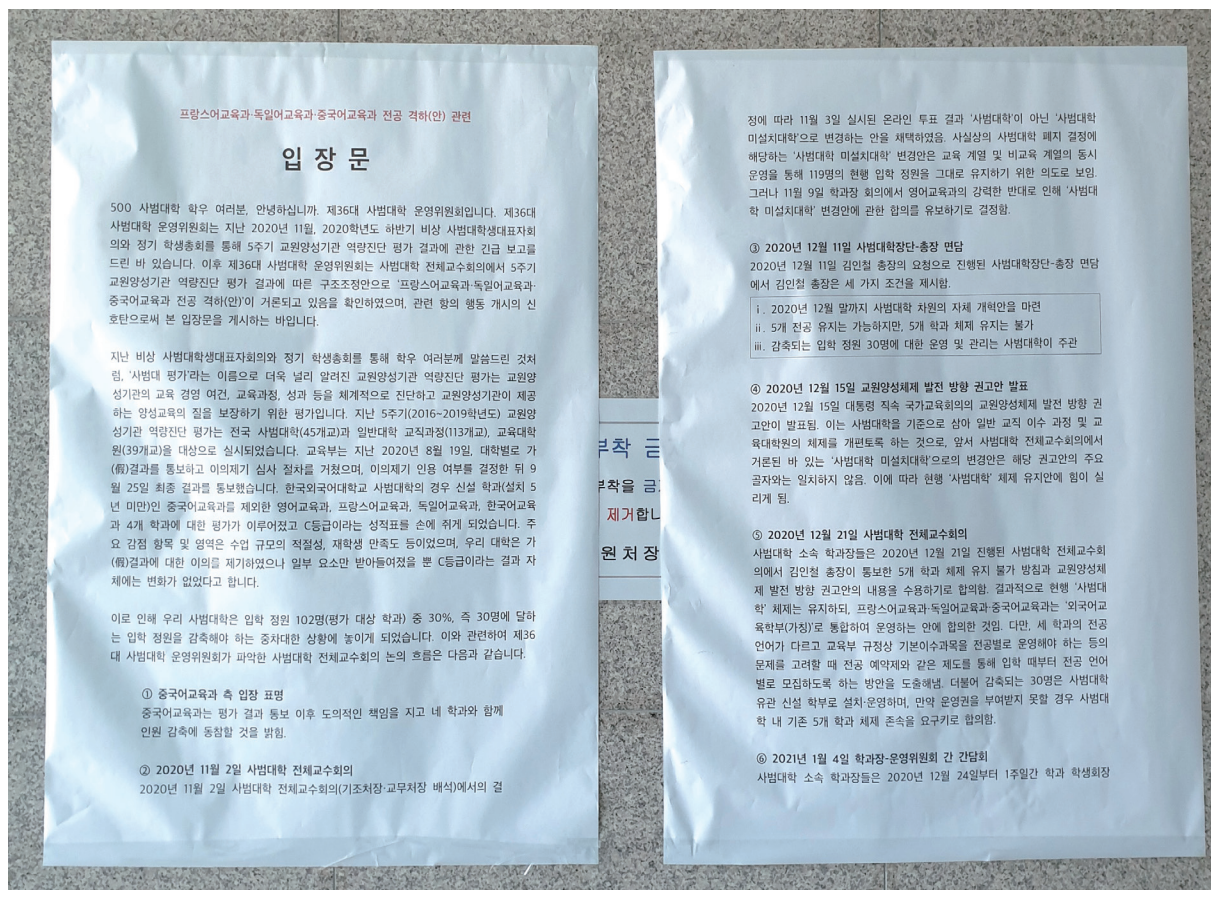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가 사범대학에 불러온 파장

우리학교 사범대학(이하 사범대)이 지난해 실시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5주기 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에 2022학년도부터 사범대는 정원의 30%를 감축하게 된다. 인원 감축 후속 논의에선 사범대 내 세 개 학과를 '외국어교육학부(가칭)'로 통합해 운영하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부분의 학생 반응은 부정적이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진단)△인원 감축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입장△우리학교 사범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5주기 진단에 발목 잡힌 우리학교 사범대

우리학교 사범대가 5주기 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이었던 우리학교 △독일어교육과(이하 독교)△영어교육과△프랑스어교육과(이하 프교)△한국어교육과는 2022학년도부터 총 입학 정원 102명의 30%인 30명을 감축해야 한다. 2016년에 신설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던 중국어교육과(이하 중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네 학과의 인원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사범대는 △교과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수업 규모의 적절성△재학생 만족도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태영 사범대 학장(이하 김 학장)은 감점 원인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일부 지표와 교수 충원 및 시설 문제 등 학교의 행 · 재정적인 지원 부족을 꼽으며 "학생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진단은 1998년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5주기 진단에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교육과정△성과 영역을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수업 운영의 현장성△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등 26개 지표로 구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을 시엔 각각 교원양성 정원의 30%와 50%를 감축해야 하며 E등급의 경우엔 교원양성 과정이 폐지된다. 이번 5주기 진단은 교대 · 교원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 45개 사범대 중 △A등급 11개교△B등급 33개교△C등급 이하 1개교로 이번 진단에서 교원양성 정원 감축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진 사범대는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서울캠퍼스 본관에 부착된 사범대 운영위 입장문

◆ 사범대 인원 감축을 두고 오고 간 논의

지난해 12월 11일, 5주기 진단 가결과 통지 이후 인원 감축 후속 논의를 위한 사범대학장단 · 총장 면담이 진행됐다. 해당 면담에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기한 내 사범대 차원 자체 개혁안 마련△5개 전공 유지 가능 · 학과 체제 유지 불가△감축되는 입학 정원은 사범대가 주관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사범대 전체교수회의에서 사범대 소속 학과장들은 김 총장의 제안과 신규 교원 양성과정을 조정하잔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독교△중교△프교를 '외국어교육학부(가칭)'로 통합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불어 30명의 감축 인원은 사범대 외부에 교육 관련 '유관 신설학부'를 설립해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관 신설학부에 대한 운영권을 사범대가 부여받지 못할 경우, 사범대 교수진은 기존 5개 학과 체제 존속을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사범대 학생들은 외국어교육학부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줄곧 △5개 학과 독립 체제 유지△5주기 진단 결과 분석 및 감점 요인 보완△학생 대표의 논의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해왔다. 이번 해 1월 6일, 제36대 사범대 운영위원회(이하 사범대 운영위)는 외국어교육학부 통합 운영으로 인한 '프교 · 독교 · 중교 전공 격하(안)' (이하 전공 격하(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김 총장이 제시한 5개 학과 체제 유지 불가 방침에 △교과교육론 측면의 연관성△구체적인 명분△세 개 학과 간 학문적 공통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것이다. 덧붙여 논의 과정에서 사범대 재학생들에게 상황이 공유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장유정(사범 · 중교 18) 사범대 학생회장(이하 장 회장)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논의 과정을 미리 공유해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사범대 운영위가 지난 1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전공 격하(안) 반대 서명운동엔 299명의 사범대 학생이 동참했다.

사범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엔 독교와 프교를 전공으로 격하해 중국어교육전공과 함께 제2외국어교육학부를 만들겠단 개편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학과를 유지하잔 학생들의 입장이 강경해 두 학과의 기존 정원 25명을 18명으로 감축하고 2016년에 중교를 신설했다.

◆ 5주기 진단이 사범대에 남긴 과제

한편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이하 4주기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는 이번 5주기 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다. 홍익대 사범대 관계자는 "4주기 평가 땐 전임교원 수가 부족해 점수가 낮았다"며 "5주기 진단에선 교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분반을 늘려 거의 만 점에 달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사범대도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 학장은 "5주기 진단 결과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며 "교수 충원이나 시설 등의 문제는 학교에 강력히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수들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며, 성과관리 TF팀을 만들어 매 학기 모든 사범대 교과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실습 이후와 더불어 실습 이전에도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교육도 구상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범대 차원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범대 재학생들은 이번 5주기 진단을 계기로 우리학교 사범대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길 기대하고 있다. 장 회장은 "타 대학을 참고하며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교수진과 학생 사이에서 진심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며 "우리학교 사범대가 교원양성기관다운 교원양성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영(사범 · 한교 18) 씨는 "학생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한층 더 발전하는 사범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범대 구성원 모두 우리학교 사범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발전을 바라고 있다. 5주기 진단을 매듭짓고 6주기 진단을 대비하며 우리학교 사범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경주 기자 02gjwoo@hufs.ac.kr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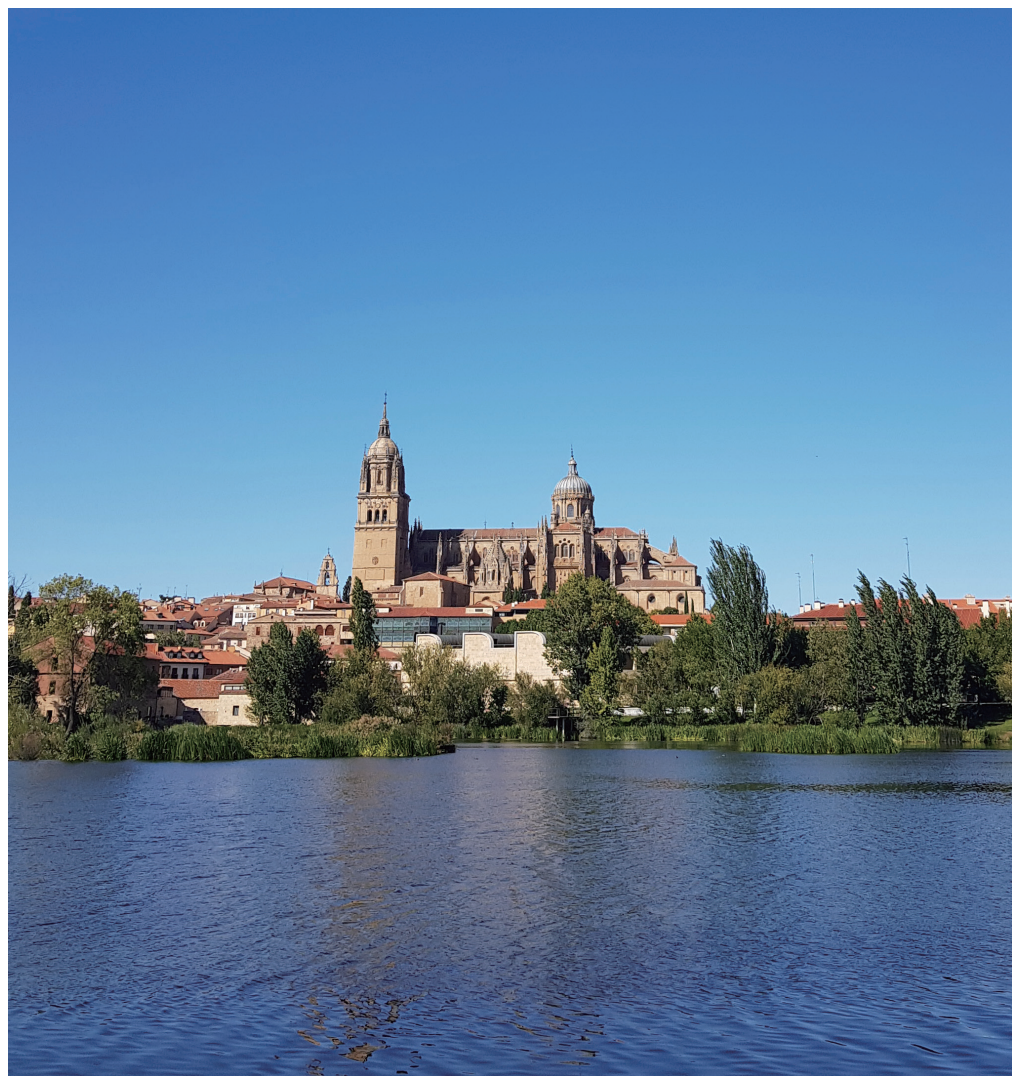
스페인, 나의 패기 넘치는 생활을 담은 곳

나는 '7+1 파견학생 제도'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University of Salamaca)에서 공부했다. 우리학교 스페인어과의 장점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국가와 학교가 매우 다양하단 것이다. 그 중에서 살라망카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국제 학생간의 교류 기회△주변 도시 및 국가로 여행이 용이한 위치△표준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살라망카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근교 도시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있는 도시다. 그렇기에 살라망카에 거주하며 스페인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개강 2주 전 미리 스페인에 가 적응기를 가졌다. △방△지리△학교생활을 생각하며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계획했다.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에 모든 게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살라망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학기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배려와 친절이 배어있는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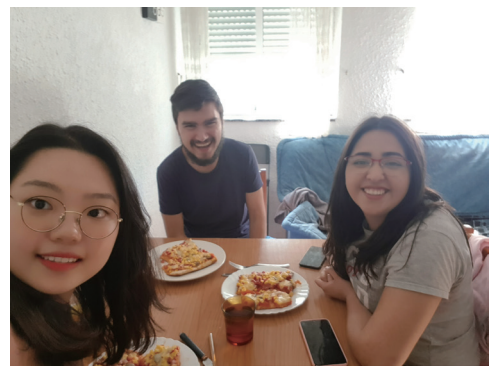
살라망카 대학교에선 총 세 수업을 수강했다. 학교에 교환학생이 많은 만큼 교수님도 교환학생을 배려해 줬고 수업 일정이 빡빡하지 않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여서 학생끼리 필기를 공유하는 문화도 일반적이다.

나는 12월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1월에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과목에 불합격했고 1월에 재시험을 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바르셀로나 여행을 하다 재시험 전날 살라망카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여행에 합류하는 속상한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수기를 읽는 파견학생 예정자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곳을 찾다가 동네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다. 신앙적인 이유보단 사람 만나는 즐거움을 위해 간 곳이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고 스페인 가정집에 초대받기도 했다. 때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과 행복을 만날 수 있기에 공부에 연연하기보단 현지에서의 삶을 즐기며 알찬 하루를 보내는 게 더 큰 행복일 수 있단 것을 깨달았다.

원래 지난해 6월까지 스페인에서 공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4월에 급히 귀국을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유럽까지 퍼지고 난 뒤, 나날이 급변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복잡해진 입국 절차△식재료 사재기△어학원 폐쇄 △외출자제 등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짧고도 강렬했던 한 달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기도 하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 해외로의 출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학업하며 남은 대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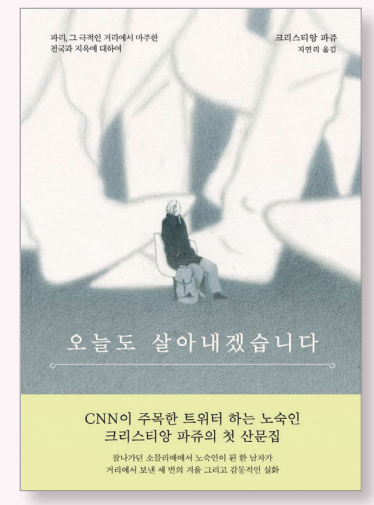
글 · 사진 박지예(서양어 · 스페인어17)

읽어서 세계속으로

프랑스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 노숙자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방법-



'책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는 프랑스의 노숙자 '크리스티앙 파쥬(이하 크리스티앙)'가 거리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았다. 크리스티앙은 파리에서 소믈리에로 일했지만 이혼과 실직으로 노숙자가 됐다. 배낭과 휴대폰이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SNS를 통해 소통하며 본인과 사회를 연결한다.

이 책은 크리스티앙이 노숙하며 만난 사람을 제시하며 노숙자를 대하는 사회의 온도를 느끼게끔 한다.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무관심과 혐오로 점철된 시선은 노숙자를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들은 외출복을 입고 거리에 나간 크리스티앙을 바라볼 땐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그가 거리에서 침낭을 펼치면 그 시선은 싸늘하게 변한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앙은 위축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크리스티앙은 사람을 통해 치유 받는다. 그에게 다가와 먹을 것을 건네고 잠자리를 제공해준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들을 통해 그는 희망을 찾는다. 결국 크리스티앙은 그 희망을 발판삼아 3년 반의 거리 생활 끝에 욕조가 있는 집을 구한다.

또한 이 책은 국가가 노숙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단 문제점을 지적한다. 크리스티앙은 프랑스의 복지 제도 속 허점을 알린다. 신발을 신지 않은 노숙자가 거리를 배회하면 유리 조각 등에 발을 찔려 파상풍에 걸리기 쉽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한 노숙자는 파상풍을 피하려 신발을 훔치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현대판 장발장'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숙자에게 수입이 생기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즉시 중단해 지속적인 생활이 어렵게 만든다.

SNS를 하는 노숙자가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기에 이 책은 더욱 특별하다. 사회와의 소통은 노숙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동력이 된다. 대다수의 노숙자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도 사회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 얼마 못 가서 다시 거리로 나앉는다. 노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책은 노숙자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를 통해 우리가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지 무관심과 혐오로 점철되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의 어제와 오늘 ①

우리학교 캠퍼스 공간의 변화



▲개발을 시작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종로와 회현동 한복판에 위치했던 우리학교 임시 교사



▲점차 캠퍼스의 면모를 갖춘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우리학교 송도부지개발 1단계 외대국제교육센터

현재 서울과 용인에 캠퍼스를 두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학교의 공간 변화 역사는 1954년 개교와 함께 시작됐다. 서울의 종로와 회현동 한복판에 위치한 임시 교사는 협소한 부지와 어수선한 복합 건물이란 열악한 교육환경이었지만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우리학교 학생에게 당시의 불편함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1956년 7월, 현재의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조성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이문동 시대의 막이 열렸다. 이듬해 9월 1일 구본관 건물이 신축되며 이문동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됐다. 현재 4분의 1만이 남겨져 역사관으로 불리고 있는 당시 본관 건물은 캠퍼스 내 유일한 건물이자 우리학교 학생에겐 면학 환경이 갖춰진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공간이었다. 1959년 11월 본관 증축 공사가 완료된 이후 1960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교사 건축이 본격화됐다. △학생회관△인문과학관△교수학습개발원△사회과학관△외국어연수평가원△도서관 등이 차례로 완공되며 점차 캠퍼스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법학관△국제학사(Glober Dorm)△사이버관 등이 생겨나며 설캠의 확장은 계속됐다. 최근까지 글로벌홀(Global Hall)과 스마트 도서관 등이 준공되는 등 캠퍼스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1970년대 후반부턴 이문동 캠퍼스의 공간 협소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종합대학교로의 발전 구상과 맞물려 제2캠퍼스 건립으로 이어졌고 계획은 빠르게 진척됐다. 1979년 여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현재의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부지를 확보했다. 이때 만들어진 공간이 △어문학관△구본관△인문경상관△자연과학관△모현학사△도서관 등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홉스돔(HUFS Dorm)과 백년관이 새롭게 신축됐고 리모델링으로 어문학관과 인문경상관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하는 등 지금의 캠퍼스 모습을 갖추게 됐다. 최근 리모델링된 어문학관과 인문경상관은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 우수 사례로 입상하기도 했다. 한편 설캠에 이어 글캠에도 스마트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의 고유 가치를 살리는 '국제교육센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인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임시 교사를 시작으로 이문동, 모현을 거쳐 송도까지 뻗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은 우리학교에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쉽게 새나가는 개인정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학교 내에서도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 학생 간 만남을 주선한 익명의 학생이 개인정보를 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제공이 손쉽게 이뤄지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고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해킹 및 직원 과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5,300만 건이다. 2019년 약 430만 건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약 1,300만 건으로 반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1월 IT 기업 '스캐터랩'이 챗봇 AI '이루다'의 학습을 위해 이전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자들의 채팅 내역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단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이루다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또한 같은 달 지도와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카카오맵'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앱 내 폴더에 저장한 뒤 다른 사용자가 그 폴더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맵에 개인정보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이루다와 카카오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관련 법안의 부재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구글 안드로이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우회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단 의혹이 일었다. 틱톡은 하드웨어에 저장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고유 식별 주소인 MAC(Media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수집해 중국 본사로 보냈다. 보내진 데이터엔 광고주가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광고 ID가 포함됐다. 결국 지난달 25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진행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9,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바이트댄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의 허점을 이용한 것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

◆ 우리학교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학생들의 인식

우리학교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에타에서 일부 학생이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조건의 사람과 연결해주는 행위가 성행했다. 이는 이용자가 주선자에게 △사진△전화번호△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밝히고 조건에 맞는 이상형을 소개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주선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주선자가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단 위협이 담긴 글을 에타에 게시했다. 이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주선자와 달리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주선자에게 제공해야 해 불합리하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주선자는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글을 삭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수원(자연 · 생명공학 19) 씨는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더 큰 것 같다"며 "에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에도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 글로벌캠퍼스의(이하 글캠) 기숙사 '홉스돔(HUFS Dorm)'의 사감이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사적인 홍보 용도의 단체 메시지를 발송했다. 기숙사 관리가 주 업무인 사감이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상 동의는 얻었으나 본 목적과 다르게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대학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1.1%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으며 △계정 해킹△보이스피싱△스팸 메시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효훈(동유럽 · 우크어 18) 씨는 "해커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다"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0.4%에 그쳤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사람들의 인식 재고를 위한 교육 모두 필요하단 응답이 60.9%를 기록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발걸음

사회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공개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을 시 재화나 서비스 제공 전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계약체결을 할 때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도 제거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벌 대상을 개인에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 전환했다.

법률 제재뿐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도 진행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행정안전부 등에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재고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방통위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사업자△취약계층△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IT 평론가 한인수 씨는 "산업의 주체와 소비자 간의 충돌이 굉장히 많다"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규제△법 등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모으는 주체들이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사전에 대비해놓아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선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이에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IT 인프라팀의 신왕철 팀장은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배수빈(인문 · 언어인지 19) 씨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식 재고가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미얀마 군부 쿠데타, 위협받는 민주주의

지난달 1일 새벽,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시위대와 자경단을 형성해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군부는 강경한 태도로 군정을 이어가며 무력진압에 나서고 있다. 군부와 시위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와 시위대의 상황△군부 쿠데타의 배경△국제사회의 반응 및 조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시위의 전개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지난해 11월의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사회 혼란과 위기를 예방한단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군 병력 54만 3천여 명과 경찰 병력 9만 3천여 명을 동원한 군부는 쿠데타 이후 정부 내각을 대거 교체하기 시작했다. 장 · 차관 24명의 직책을 박탈하고 국방부 및 외무부 등 11개의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그리고 국민민주연맹(NLD)의 의장인 아웅 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구금했다.

현재 군부는 1년간의 군부 통치가 끝나면 새로운 선거를 열어 승리한 정당에 권력을 이양하겠단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이후 국민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초반 시위는 시민들이 저녁마다 각자 집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납세 거부 운동이 이어졌다. 이후 대학생과 의료 관계자를 주축으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거리 시위가 시작됐다.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의 각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쿠데타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국민은 각종 SNS를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22일엔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이 시행됐다. 2021년 2월 22일 오후 2시를 뜻하는 '22222 파업'에 전국 각지의 공장과 상업 시설 등이 임시 휴업에 돌입했고 △공무원△법조인△승려△은행원△의료인△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이 동참했다. 22222 파업은 과거 '8888항쟁'을 모태로 삼아 구축됐다. 8888 항쟁은 1988년 8월 8일 당시 양곤에서 수 만 명의 학생이 독재자 네 윈 육군총사령관의 하야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건이다.

이와 같은 규탄 시위에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군부는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야간 통행과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모든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하고 정부 청사와 도로 곳곳에 병력을 배치해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교통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텔레비전 등 각종 통신매체도 차단했다. 군부는 쿠데타 규탄 시위대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한 시위 진압 과정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물대포와 실탄을 발포하는 등 무력을 가해 현재까지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시위대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팔뚝에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는 등 군부에 굴하지 않고 항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양곤에서 약 천 명의 친군부 시위대가 집결했다. 이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돌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시민 간의 충돌도 심화되고 있다.

◆ 민주화 6년 만에 또다시 발발한 군부 쿠데타, 그 배경은?

1948년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62년에 네 윈 육군총사령관에 의한 쿠데타로 53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다. 2008년 군부 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에 따라 군부는 의회에서 상 · 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고 △국경경비△국방△내무 등 치안 관련 부처의 관할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령관은 자동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게 했다. 2015년에 열린 총선에서 문민정부가 설립돼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헌법은 여전히 과거 군부가 제정했던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의회 내 군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개헌 시도가 계속됐지만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부는 지난달 1일 헌법에 근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경과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의 대치 모습 (출처: 로이터 통신)

민아웅 흘라잉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국가운영평의회를 조직한 군부는 선거부정을 이유로 지난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정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이유로 선거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는 무슬림계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서 치안 불안을 이유로 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군부의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발표했다. 총선에서 약 1,050만 건 이상의 선거 부정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해결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군부가 제시한 선거 부정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장준영 우리학교 동남아연구소 교수(이하 장 교수)는 군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는 "미얀마 유권자가 약 3,800만 명에 달하므로 1,000만 건 이상의 선거 부정이 있었단 군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 국제사회의 반응과 앞으로의 방향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무력 진압에 대해 각종 정치 ·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먼저 국제기구는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제재를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군사 쿠데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UN)은 미얀마 군부의 시민을 겨냥한 총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히고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얀마 군부는 즉각 탄압과 폭력을 중단하고 수감자를 석방하라"며 미얀마 국민의 인권과 최근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초 모에 툰 주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의 군부 쿠데타 비판 및 제재 요구 연설에 미국과 유럽연합 대사는 지지의 뜻을 보냈다.

영국과 캐나다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주역들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 적용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 중단 방침을 밝혔다. 과거 군부 쿠데타와 민주항쟁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의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시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국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제재방침을 시사했음에도 미얀마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 비난했다. 이어 이번 달 3일엔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견뎌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국가 또한 미얀마 쿠데타 사건에 개입해선 안 된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쥔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국내 문제로 규정하며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역시 미얀마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단 입장을 피력했다.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 속에 미얀마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 장 교수는 미얀마 시위의 전망에 대해 "과거엔 군부의 잔인한 무력 진압이 모두 성공했지만 이번엔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통해 연대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과거완 다른 전개로 나아갈 것이라 예측했다. △군부△반군부△친군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위 양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사회 지난달 26일, 전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시작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1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28만 9천여 명이다. 정부는 이번 해 안에 약 4,000만 명의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할 계획이다.

정치 이번 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이번 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꾸준히 역대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경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3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광명, 시흥 지구 토지를 투기했단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이번 달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국제 지난달 13일, 일본 후쿠시마 해안서 7.3 강진 발생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일본 북부 지역의 85만 가구가 정전됐고 9시간 동안 규모 3.0에서 5.0의 여진이 14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여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영화의 명과 암, 앞으로의 논의는?

지난달 미국 중남부 지역에 몰아닥친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정전 및 전기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텍사스주의 전기시장 민영화를 지적했다. 한파로 인해 급감한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비가 부족했단 것이다. 이창율 우리학교 행정학과 강사를 만나 민영화의 개념 및 민영화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창율 우리학교 행정학과 강사

Q1.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정전 및 전기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텍사스주의 전기시장 민영화를 지적했는데요. 민영화란 무엇인가요?

민영화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민영화 논의의 핵심은 소유권 및 시장구조예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개념 지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초점을 맞출 경우,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시로 공기업의 주식과 재산이 민간에게 매각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영화의 개념은 확장됩니다. 시장경쟁 원리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급기능을 민간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해요. △민간기업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자유화△정부 소유의 주식 또는 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비국유화△정부가 공급하던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등이 포함됩니다.

Q2. 이번 텍사스주 전기요금 폭탄은 중앙 정부가 요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란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 시행 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민영화 시행 시 국가는 자율적 시장 질서 확립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가스△수도△전기△철도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기에 공익성을 지닙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이때 소수 기업의 독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해 서비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위해선 먼저 자율적 시장이 보장돼야 합니다. 기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이 민간부문에 존재하거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해 서비스 제공 경쟁이 가능해야 하죠. 또한 기존 정부의 공급 방식보다 더 큰 효율을 가져야 합니다. 비용 절감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돼야 민영화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때 정부는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규제를 사용해 경쟁을 유도하거나 과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예로 가격 상한제와 같은 요금 제도를 들 수 있어요. 또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사회 계층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공공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궁금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을 논의하기 위해선 먼저 기존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란 전제가 필요해요. 이런 가정하에 공공부문이 민영화된다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죠. 이때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보되면 해당 기업은 △서비스 질 향상△업무처리 신속성 확보△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게 돼요.

민영화 시 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재정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원이 민간으로 이전된다면 사회 전체적 자본 효율성이 증대되죠. 또한 소비자가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선택권을 가진 주체가 됨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요.

Q3-1. 민영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엔 무엇이 있나요?

시장에 경쟁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 서비스 요금과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요.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통해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은 경영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시도하죠. 이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 사회 전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은 발생해요. 정부가 민간기업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 공급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이에 대한 적자는 정부가 공적으로 부담하죠. 그러나 민영화 시 기업은 이익을 위해 고수익 저비용 사업에만 집중하는 '크림 스키밍' 행태를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소홀해질 수 있죠.

Q4.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해당 사례는 성공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높은 시장성과 효율성을 달성한 민영화의 사례로 KT&G를 들 수 있습니다. 2002년 말 공기업이었던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로 민영화된 후 적극적인 기업 인수를 도모했습니다. 기존의 담배와 인삼 사업을 넘어 △부동산△제약△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해외시장 개척 또한 성공적이었죠. 담배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품질경영 강화를 달성했어요. 이와 함께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를 통해 독립적 이사회 중심의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했죠.

Q4-1. 타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성공사례가 궁금합니다.

독일의 우정기업인 도이체포스트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민영화 추진 시 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알 수 있죠. 독일 정부는 통신과 우편시장을 독점하던 연방 우정 회사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자 1995년 해당 회사를 도이체포스트와 도이체텔레콤 등으로 분할합니다. 이후 2000년 기업공개*를 통해 도이체포스트를 민영화하죠. 해당 기업은 △디지털 우편서비스△온라인 광고서비스△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제특송회사 'DHL' △미국 해운운송회사 '단자스(Danzas)' △영국 물류업체 '엑셀(Excel)'을 인수했어요. 그 결과 도이체포스트는 세계적인 전문 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민영화 과정에 적극 개입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Q4-2. 민영화로 인해 혼란을 겪은 사례도 있나요?

민영화 실패사례로 이번에 발생한 미국의 텍사스 정전 및 전기요금 폭탄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태는 중앙 정부의 규제가 없는 민간 경쟁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죠. 텍사스는 중앙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자 미국의 다른 주들과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고 자체 발전으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텍사스의 전기시장 민영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경쟁을 통한 저렴한 전력사용료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민간기업들은 이익을 우선시했고 발전소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텍사스의 민간전력을 이용한 가정들은 지난 15년간 다른 주의 평균 전력사용료보다 13% 이상 높은 사용료를 냈어요. 미국의 신문사 '월스트리트저널'은 텍사스의 전력 민영화가 실시됐던 지난 2004년 이후, 소비자들이 약 31조원의 추가 부담을 졌단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영화와 경쟁체제구축이 반드시 소비자 효용과 이어지진 않는단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Q5. 민영화 논의 시 가장 중점에 둬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시되는 가치는 공공성과 수익성입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요금재**의 특성을 가져요.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공공성을 지니며, 대가 미지불 시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단 점에서 기업적 경영의 수익성을 지니죠.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하면 민영화 논의에서 중요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며, 넓은 의미론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를 포함하고 좁은 의미론 주식공개를 뜻함
**요금재: 공공재 가운데 비경합적 소비가 이뤄지나 배제 자체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준공공재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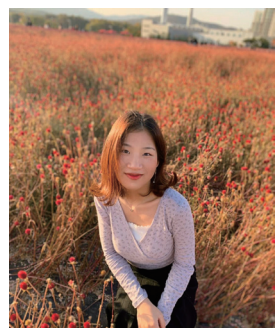
기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

지난해 환경부 산하의 기자단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작성한 기사를 제출하면 현직 기자분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피드백 없이 바로 기자단 사이트에 기사를 올렸다. 이에 기사 작성은 쉬운 일이라 생각했다. 작성한 기사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을 전달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만 쓰면 기자의 소임을 다한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의미가 담긴 기사를 쓴다고 좋은 기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

지난학기 기사 작성에 관한 수업을 들으며 기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걸 알게 됐다. 내가 수업에서 작성한 기사를 읽은 취재원이 기사 속 자신의 발언이 말한 의도와 조금 달라졌단 얘기를 해줬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정이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었다. 분량상의 한계로 취재원 한 사람의 말을 온전히 옮기기 힘들단 이유도 있었다. 이후 작성한 기사부턴 취재원 인터뷰를 인용하는 게 조금 두려워졌다.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 나도 모르게 의도를 왜곡하진 않을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우린 같은 언어로 표현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개인의 언어는 모두 다르기에 기자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언어를 제대로 파악해 전달해야 한다.

또한 학보 수습 교육을 받으며 기자의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다. 복잡한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는 과제를 할 때였다. 머리론 사건을 이해했지만 막상 글로 쓰려니 막막했다. 기자로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은 필수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사로 작성한 내용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란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기사 작성 계획부터 문단 구성까지 쉬운 일이 없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기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 이유엔 책임감 없는 일부 기자와 '기자단' 처럼 기자란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기사 작성을 쉬운 일이라 여기는 인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기자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기사를 작성하며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기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임감이 진정한 기자가 되기 위한 발판인 것 같다. 이러한 책임감을 안고 나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기사를 써보려고 한다. 부족함을 보완하고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가 될 것이다.



정나윤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무진기행'을 읽고]
부끄러움으로 촉발되는 희망

책 '무진기행'은 부끄러움에 관한 소설이다. 작품 속 주인공 '윤희중'은 제약회사의 회장인 장인어른과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고향인 무진으로 간다. 오랜만에 도착한 무진은 윤희중에게 반길만한 곳이 못 된다.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싸우던 친구들과 달리 본인은 어머니의 강압으로 다락방에서 무기력하게 숨어지냈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무진은 가히 '속물의 도시'라 할만하다. 동네 사람들은 윤희중을 서울에서 장가 잘 가 성공했다며 헐뜯기 바쁘다. 친구 '조' 역시 윤희중의 성공을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결과다"고 치부하며 그에게 은근한 열등감을 느낀다. 조와의 술자리에서 만난 마을 초등학교 선생 '하인숙'은 순수한 사랑보단 있는 자들의 권력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생활에 권태기를 느낀 하인숙에게 윤희중은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이는 둘의 외도로 이어졌고 하인숙은 윤희중에게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한다. 윤희중은 그러리라 마음을 먹지만 서울로 돌아오란 아내의 호출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력하게 서울로 돌아간다.

김승옥 작가는 해당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출세주의 같은 속물근성이 만연한 6-70년대 세태를 그려냈다. 윤희중은 속물 속에 둘러싸인 자신도 속물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혹자는 소설 내내 무력한 윤희중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품 속 윤희중의 상황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대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 한 번쯤 사람의 내면이 아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진실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고 사람을 대하기도 했을 터다. 이렇게 불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자신에 실망했을 수 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확대될 때 윤희중의 자기 혐오적 부끄러움은 모든 인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단 명제에 대한 합의로 나아간다.

수오지심이란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에 따르면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자신이 불완전하단 인식과 맞닿아 있다. 세상 어느 것도 완전할 순 없다. 역설적이게도 변화는 이런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큰 희망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완벽함을 가장하는 위선보단 무진기행 속 자기 혐오적 부끄러움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고]
그 여자는 구원받았나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바로 복수를 통한 구원과 여성 서사로써 가진 의의다. 주인공 '이금자'는 어린 시절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살인죄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감옥에서 이금자는 살가운 모습을 연기하며 13년 동안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백 선생'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한다. 출소 후엔 자신의 복수에 주변 사람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금자의 복수 목적은 속죄와 구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구원받지 못했단 내레이션과 함께 영화가 끝난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단 점이 마음에 걸렸다. 아마도 이금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평생 자신이 받은 상처와 남에게 준 상처를 털어내기보단 끌어안고 살길 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느끼듯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화가 사람들의 공감을 산 이유는 구원이란 추상적인 질문에 가장 와닿는 답을 제시해서가 아닌가 싶다.

한편 이금자를 움직인 원동력은 모성애다. 여기서 여성의 욕망과 행동의 동기를 어머니란 역할에 한정시켰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영화 초반의 이금자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백 선생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러나 딸 '제니'가 나온 후부터 이금자는 복수자가 아닌 어머니가 된다. 이는 박찬욱 감독의 이전 작품 속 남자 주인공과 대비된다.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의 '류'가 복수를 결심한 이유도 이금자와 같이 가족을 잃어서였다. 그러나 이들의 서사 속 가족은 단지 계기일 뿐이다. 오대수는 자신이 감금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류는 장애인과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움직인다. 반면 이금자에겐 딸 제니가 복수의 원동력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성 위주 서사의 영화임에도 고전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한계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친절한 금자씨는 우리나라 여성 서사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영화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을 묘사하며 젊은 여성을 향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담백하게 풍자했다. 여자 재소자들을 통해 매체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여성 범죄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기도 했다. 또 복수를 소재로 구원이란 주제에 대한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끌어냈다. 친절한 금자씨가 2004년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PRESS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1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십니다.

◆**활동내역** **2021**년 1학기 **외대학보 1052~1056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모집기간** **3**월 **12일(금)**까지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문 의** **서울캠퍼스** 우경주 기자 010-8617-1681 **글로벌캠퍼스** 정나윤 기자 010-5114-1759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더 나은 세상으로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다. 겨우내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움츠렸던 생명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운다. 학교는 방학 동안 쌓인 먼지를 털고 학생들을 맞이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 둘씩 모여 동적이고 활기찬 느낌을 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일상은 움츠러들었고 이번 봄에도 캠퍼스는 여전히 학생들을 맞지 못해 삭막함이 감돈다.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고 사회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발하고 있다.

최근 우리학교는 두 건의 학제개편 사항을 놓고 곤혹을 치렀다. 바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3개 단과대학 학제개편과 사범대학 인원 감축이다. 이 두 사안을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은 각각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주체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결국 글캠의 학제개편은 잠정 보류됐다. 사범대학의 경우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일방적인 결과 통보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란 입장을 표명했다.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구성원 전체가 스스럼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다 보면 속에서 곪기 시작해 결국 큰 열병을 앓기 마련이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다.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무장한 군의 무분별한 탄압이 이어지며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총선을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나긴 군부 정권의 독재가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남아있던 잔재와 뿌리는 쿠데타의 발판이 됐다.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 국가는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통탄스럽지만 그저 하루빨리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길 소망한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을 완수하는 데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의 가치를 잊기에 십상이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살만하다' 고 느낄 수 있는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선 사회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래왔기에 현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크고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하나둘 모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갈 것이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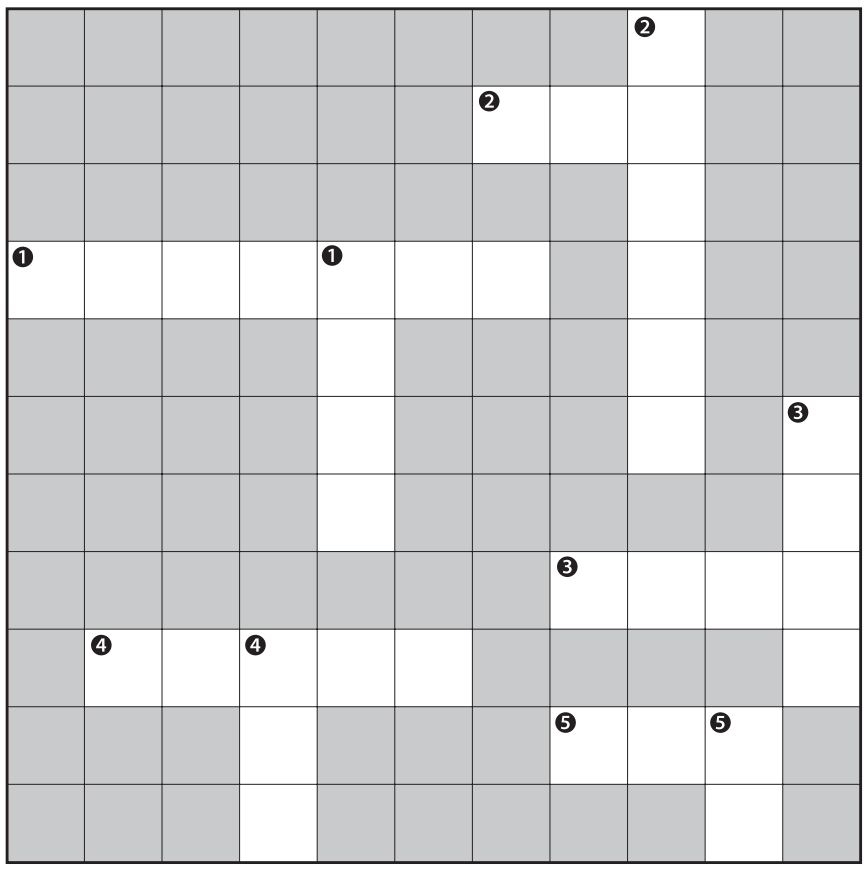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학교

이환희(공과 · 산업경영 18)



▲2018년 글로벌캠퍼스의 사계절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에 선정됐다. (1면 참조)
2. 우리학교 설립 후 첫 수업이 시작된 건물은 ○○○이다. (6면 참조)
3. 미얀마 군부는 ○○○○의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8면 참조)
4. 학칙 제 47조 1항에 따라 ○○○○○은 재학생으로 볼 수 없다. (2면 참조)
5.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 특성을 가진다. (9면 참조)

세로

1. 글캠 총학 '온(ON)' 은 입장문과 대자보를 통해 ○○○○에 반대했다. (4면 참조)
2. 30명 감축 인원은 사범대 외부에 교육 관련 ○○○○○○를 설치해 관리하고자 한다. (5면 참조)
3.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면 참조)
4. 미얀마 ○○○가 약 3,800만명에 달하므로 1,000만 건 이상의 선거부정이 있었단 군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8면 참조)
5. ○○곡을 통해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작곡가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1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본 2021년의 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될 것이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3학기째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비대면 플랫폼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반면에 대학생활의 황금기인 1~2학년 기간을 온라인 강의로 시작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한국외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교환학생, 해외인턴쉽 등 해외체험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3~4학년 학생들도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1997년에 필자가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를 연상케 한다.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은 외견상 나쁘지 않았다. 실업률은 2%를 약간 웃도는데 불과했고,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6% 수준이었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거쳐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위기를 견디어 냈지만, 단기차입 외채가 많았던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재개 14위였던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4위인 기아그룹과 대우 등 굵직한 재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이했다.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총 외채가 2,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했다. 이후 정확한 실사를 통해 약 1,5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단기외채의 비중이 59%에 달했고, 이는 당시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12월 3일 5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30여 년간 지속해 온 고속성장의 신화가 종식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실업률은 2.1%에서 8.8%로 4배가 증가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이다. 한편 외환위기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위기 이전 환율은 960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중 환율은 거의 2,0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후 환율은 다시 감소하였으나, 원화는 장기간 달러대비 약세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해외경험을 계획했던 많은 학생들은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는 순환의 속성을 갖는다. 1998년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는 1999년에는 10% 이상의 초고도 성장을 기록했다. 침체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 또한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2008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5% 이상의 양호한 성장을 보였고, 실업률도 3%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압축성장에 따른 많은 사회적 모순과 제도적 약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다양한 개혁조치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1997~98년의 경험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회복을 도모하는 2021년에 있어 교훈을 준다. 팬데믹은 전형적인 외생적 충격이다. 어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상황이 개선되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정상화를 위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부터 많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주요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보건당국은 올해 11월까지 전 국민적인 집단면역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약 4.4%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IMF는 2021년에는 경제적 반등을 이루어 5.5%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19의 그늘로부터 점차 벗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와 개인의 차원에 있어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종식된 이후에도 많은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위에 언급했던 노동시장의 변화 외에도 빈부격차의 확대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주로 노동자 또는 소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영세상공인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여파가 오래 남을 수 있다.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치의 붕괴, 개인파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와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0hyunzi@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이현지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다양한 악기로 음악과 소통하는

이재현
작곡가를 만나다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이재현(사범•영교 07)(이하 이 작곡가)은 가수 아웃사이더의 노래 '피고 지는 날들'로 데뷔했다. 일본에선 가수 규현의 노래 'Lost My Way'로 인기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엔 가수 △레드벨벳△비와이△신승훈△에일리 등의 곡을 작업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중국△태국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작곡가를 만나보자.

Q1. 작곡과는 거리가 먼 우리학교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특별히 영어 교사에 뜻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과생이었는데 이과 과목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에 문과로 전향할 수 있는 학과를 찾다 우리학교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1-1. 우리학교엔 음악대학이 없어 작곡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작곡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혼자 공부했어요. 유튜브 등을 통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어 작곡 공부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작곡은 창작의 영역이기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스스로 음악적인 감각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음악대학에서 공부했다면 작곡 외에 △공연△과제△수익 활동 등 다른 일에 더 집중했을지도 몰라요.

Q1-2. 어떻게 작곡가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됐나요?

황성제 작곡가(이하 황 작곡가) 덕분이에요. 우연히 황 작곡가가 만든 가수 보아의 노래 '아틀란티스 소녀' 발매 과정을 담은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고 무작정 황 작곡가를 찾아갔죠. 다행히 절 좋게 보셨고 작곡가의 길로 가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곡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Q2. 학교생활과 작곡 활동의 병행이 힘들진 않았나요?

물론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 대한 도리로 대학은 졸업하자고 생각했어요. 휴학 없이 학기를 마친 뒤 온전히 작곡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간 준비해 작곡가로 데뷔했죠.

Q2-1. 우리학교에서 배운 것 중 작곡가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우리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영어로 외국 회사나 가수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영어를 못했다면 통역 과정을 거쳐야 해 작업이 힘들었을 거예요.

Q3. △건반△기타△드럼△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악기 배우는 걸 좋아해요. 학교에서 동아리 '새물결' 활동을 하며 다룰 수 있는 악기와 실력이 늘었어요. 만약 새로운 악기를 배울 수 있다면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요. 국악의 5음계의 개성과 한국적 정서가 멋지다고 생각해요. 가야금은 기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어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Q3-1. 동아리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악기를 배우며 공연을 준비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많은 악기를 접하고 곡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곡과 공연의 열정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작곡가

Q4. 곡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먼저 가수로부터 곡 작업 의뢰를 받으면 참고용 곡과 장르를 분석해요.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수가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곡을 써야 할 땐 계속 참고용 곡을 들으며 노래에 애정을 가지려 해요. 이후 본격적으로 △작곡△작사△편곡을 합니다. 작업 마무리 단계에선 가이드 녹음을 해요. 그렇게 만든 곡을 가수에게 보냅니다.

Q4-1. 장르에 따라 작곡의 접근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작곡은 크게 △작곡△작사△편곡으로 나뉘어요. 장르에 따라 세 가지 순서가 달라지기에 작곡의 접근 방향도 변하게 되죠. 발라드곡은 보통 피아노를 치며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나 댄스곡은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중요해 후렴구부터 만듭니다. 한편 힙합의 경우 트랙을 만들어 편곡한 뒤 가수에게 작사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장르에 따라 작곡 방향이 다양해져요.

Q5. △댄스△락△발라드△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작업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나요?

정통 재즈곡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재즈는 악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분야이기에 음악을 공부했단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르라 생각합니다. 재즈곡을 통해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대중음악 작곡가란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가수에게 곡을 줄 준비는 다 해놨는데 마땅한 재즈 가수가 없어 나타나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Q6. 작곡가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창작의 고통을 느낀 적은 없나요?

많이 느끼죠. 특히 중독성 강한 후렴구를 쓰고 싶은데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힘듭니다. 악기 연주나 컴퓨터 작업은 계속하다 보면 결국 실마리가 보이지만 멜로디는 떠오르지 않으면 작업에 진전이 없거든요. 좋은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을 땐 고민하며 며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곡을 완성했는데 별로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작곡가

Q6-1. 창작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창작은 계속 고민한다고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던 작업을 멈춰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편입니다. 그 후에 작업한 곡을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다시 작업을 시작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Q7. 보통 작곡할 때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기존 곡에서 얻어요. 곡을 들으며 그 곡의 좋은 요소를 파악하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 모음집을 듣기도 해요. 디스코 장르 곡을 쓸 때 유튜브의 '경쾌한 디스코 노래 모음' 영상을 보며 디스코곡으로 활동한 가수의 정보를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그 가수의 곡을 분석하며 영감을 얻었죠.

Q8. 스스로 듣기에도 뿌듯한 곡이 있나요?

가수 케이시의 노래 '손을 잡아줘'에요. 이 곡으로 케이시의 인지도가 높아져 뿌듯했습니다. 피아노 반주만 쓰인 곡이라 가수의 감정도 진솔하게 담을 수 있었어요. 멜로디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긴 곡입니다.

Q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요?

지난해 곡 발매를 많이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계 및 방송계가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기획사가 위축돼 가수들이 내는 앨범도 적어지니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방 영업도 제한되다 보니 노래 반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Q10. 작곡가로서 어떤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있나요?

좋은 인성을 갖고 작곡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사회생활이 쉽지 않단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작곡가는 1인 기업이라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많더라고요. 풍파를 겪으며 △능력△성실△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케이팝(K-POP) 작곡가로서 목표는 제 곡이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 차트' 연말 시상식에 오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저 같은 프로듀서가 있단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다양한 곡을 여러 국가에 발매해보고 싶어요.

Q11. 마지막으로 음악 관련 직종을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다채로운 활동을 하며 진로를 탐구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에 오기 전까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거예요. 대학 시절엔 다양한 도전이 허용되는 시기니 많이 시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 분야를 탐구해본 후에도 음악이 하고 싶다면 음악 관련 직업을 꿈꾸길 바라요. 혹시 음악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도 돼요.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